



화암사의 빼어난 점은 환상적인 입지와 드라마틱한 진입로, 잘 짜여진 전체 구성을 건물뿐 아니라 주변자연과의 탁월한 조화에 있다. 화암사의 중심적인 우화루 전경.

# 천연요새에 지은 城같은 고찰

## 화암사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 국내유일 하양 건축물 입지·짜임새 빼어나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불명산 깊은 산속에 화암사라는 작은 고찰이 있다. 이 절의 극락전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하양구조를 갖고 있는 보물 중의 보물이다. 하양(下陽)이라는 부제는 기둥 위에 세워진 포작과 서까래 사이에 끼워진 긴 막대기 모양의 부재를 말한다. 그 위에 서까래를 얹으면 그만큼 처마를 길게 뻗 수 있도록 고안된 일종의 겹 서까래 구조라 이해해도 무방하다. 하양구조는 중국과 일본의 건물에는 흔히 쓰이는 형식이지만, 한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고려조와 청동탑 모형 등에서만 확인됐을 뿐이다. 이를 발미로 일본학자들은 한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하양법이 전수됐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1970년대 화암사 극락전에 하양이 있다는 보고는 일본측에는 충격이었고, 한국에는 더없이 반가운 발견이었다. 심지어는 "건조물 문화재계의 해방 이후 최대의 발견"이라는 극찬까지 받았다.

그러나 희귀한 구조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도 이 절의 환상적인 입지와 드라마틱한 진입로, 그리고 잘 짜여진 전체 구성만으로도 최고의 건축이다. 이처럼 고조하게 남아있는 사찰이 또 어디 있을까. 몇 년전까지만 해도 아직 차마 닿을 수 없는 몇 안되는 사찰이었다. 아름다운 계곡을 타고 오르면 바람이 가르막고 바람 사이 한사람이 겨우 오를 정도의 아슬아슬한 길이 비위 끝으로 이어진다. 예전에 다니던 진입로였다. 너무 통행에 힘들어 1983년 영의 폭포 위로 철계 계단과 다리를 놓았다. 통행에는 편해졌지만, 운치가 없고 경관을 해치고 있다. 이 절도 보존이나 개발이나의 기로에 서 있다.

15세기 때 쓰여진 <화암사(화암사의 예전이름)중창비>에는 "바위바탕의 허리에 너비 한 자 정도의 가느다란 길이 있어 그 바탕을 타고 들어가면 이 절에 이른다. 골짜기는 가히 만여리 말을 갈무리 할만큼 넓고 바위가 기묘하고 나무는 높고 울창하며 깊은 성(深廓)이다. 창으로 하늘이 만든 것이요 땅이 감추어둔 도인의 복된 땅"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아직도 옛 모습의 흔적은 완전히 남아있다.

힘들게 올라온 끝에 한술 돌리고 나면, 누각과 그 옆의 대문으로 가로막힌 한무리의 기와집이 나타난다. 정면이 외부에 대해 굳게 닫혀있어서, 사찰이라기 보다는 어느 유적 문중의 재실이나 사원과 같은 인상이다. 화암사는 험한 능선이 갑자기 완만해지면서 만들어진 800여평의 비위 위에 터를 잡았다. 중심축은 전면 우화루와 뒤의 극락전, 서쪽의 적묵당과 동쪽의 불명당으로 이루어진 작은 중정이다. 우화루와 불명당 사이로는 복합을 하고 있는 명부전이 눈에 들어온다. 우화루는 2층의 누각이지만, 아래가 석축으로 막혀있어 출입이 불가능하여 옆의 대문을 통해 진입해야 하고, 대문을 들어온 후에도 적묵당의 부속에서 일하는 보살의 감시를 받아가며 우화루 모퉁이를 지나야 중심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타의 다른 부분은 건물이나 돌각담으로 막혀 있다. 앞면 위에 굳게 닫힌 화암사의 외관은 마치 작은 성채를 보는 것과 같다.

신라 때 의상이 창건한 것으로 주장하는 이 절은 서해에서 경주에 이르는 옛길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임진란 때 충청도 금산에서 이치대첩(梨峙大捷)의 큰 전과를 거두었다 이곳까지 병화의 피해가 번져 불타 버렸다. 전쟁 직후인 1604년 서둘러 중창되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이 절은 순수한 종교시설이라기 보다는 풍수적 관점의 비보용이나 군사적 목적을 띄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성채와 같아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적묵당은 뒤쪽으로 두 날개채를 가진 긴자 관현의 승방이다. 자연스레 만들어진 뒷마당(後院)은 스님들의 생활공간이다. 일반 신도들은 넓은 부엌을 통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곳이기도 하다. 건물에는 뒷마당이 달려 생활에 더욱 편리하도록 되었고, 마당 앞으로는 자연 암반이 솟아있고, 그 위에 소박한 정자대를 마련했다. 정자대 앞에는 정갈 작은 산신각이 '엄격'해 있다.

절의 서쪽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넓은 계곡이고 여기에 가느다란 물줄기가 흘러 아래 폭포의 원류가 되고 있다. 물줄기 중간에는 지그재그형으로 배열된 5개의 중간 웅덩이가 파져 있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이 분명한 이 시설물은 경주의 포석정과 같이 물놀이용의 시설이었는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불타터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단히 절묘한 아이디어였다. 화암사는 너무나 깊은 산속에 외로이 있어서, 일반 신도들 보다는 스님네들의 작은 수행공간으로서, 마치 성채나 수도원과 같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도록 건축되었다.

그러나 화암사 마지못도 변형과 파손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산 뒤쪽으로 자동차 길을 만들어 절까지 차량이 올라올 수 있도록 했고, 서쪽 암반에 흉한 콘크리트 덩어리 축대를 쌓아 주차장을 조성했다. 다형스럽게도 아직은 승방이나 극락전 우화루를 손대지 않고 있지만, 화암사 건물의 빼어난 점은 건물 뿐 아니라, 주변 자연과의 조화에 있다. 건물만 보존하고 자연을 손대려면, 화암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파괴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 불교기아기구 네팔에 학교 두곳 설립

## 내년 개교...문맹퇴치·불교교류 기대



네팔 주민들과 자리를 함께 한 김재일 회장.

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는 올해 안에 네팔 카라라바스트, 포카라에 초등학교를 각각 설립해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김재일 회장은 지난 2월22일부터 3월1일까지 네팔 현지 당국자와 주민 대표들을 만나 학교설립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협조약속을 얻어냈다. 대지 2000여평에 교실 10여칸의 공간에 교사 5명 정도로 운영될 초등학교

교는 네팔의 문맹퇴치는 물론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해 양국간의 불교 문화 교류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재일 회장은 "네팔 불자들을 위한 교육사업은 문맹퇴치를 통한 근원적인 기아 해결책의 하나이자, 불제자로서 부처님나라에 은혜를 보답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일 기자 (jgkim@buddhania.com)

## '인드라망' 대중결사 강화

### 울사업 수렴...소식지 발행 친환경농업교육장도 설치

창립 후 첫 돌을 맞는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상임공동대표 도범)가 조직의 정체성 확립을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생태적 대중결사운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상임공동대표 도범)는 지난 3월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제1차 정기 총회를 열고 ▲장성 계획 ▲5대 영역 사업 안건(귀농운동, 생명운동, 공동체 운동, 대안교육운동, 환경연대운동) ▲대중적 결사운동으로의 전환 모색 등 올해의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인드라망이념의 확산을 위해 실무인력 능력 배양을 위한 일꾼 수련프로그램 개발, 대내외적 이념 확립을 위한 정기 대화공강인 '회엄공강' 개설, 격월간 '인드라망' 발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확정했다. 회회는 특히 올해 안에 친환경농업교육장을 설치해 생명존중의 불교적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련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유기농농업교육장은 8월중에 실상사 인근 계곡을 매입해 올해 말까지 건물 개축 및 신규시설 준비를 끝내고 내년 1월까지 귀농전문학교를 이곳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 "나눔과 참여없으면 통일은 헛구호"

### 박노해시인 통일특강



박노해 시인은 10일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열린 통일특강을 주재로 강연했다. 강의내용을 요약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내부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개혁없는 우리 미래에 진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북한 동포들에게 참여하며 동강살리기운동에도 나서고, 시민운동에 구체적으로 내가 단돈 천 원이라도 회비를 내고, 한시간이라도 자원봉사 캠페인에 나가는 생활화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없이는 우리의 미래 통일은 헛구호로 끝나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눔과 참여로 나보다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육신적인 애정의 동질성과 감수성을 갖는 것, 그리고 다름과 차이에 대한 긍정과 대화의 시작, 우리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시민운동의 참여,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김재경 기자

## 쓰던 물건 가져오면 바꿔 줍니다

### 재활용품 중개소 '초록이'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산하 이웃을 돕는사람들(이사장 김동훈)은 4월초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20여평 규모의 재활용품 중개소인 '내 친구 초록이'를 오픈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수집하거나 폐품을 활용이 가능한 물건으로 수리,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이 알뜰가게는 지역 불자나 시민이 가져온 물건의 가치를 평가, '내친구 초록이'에서 판매하는 물건과 맞바꿀 수 있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리사이클링 재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웃을 돕는사람들은 YMCA의 '녹색가게'와 같은 형태로 알뜰가게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기마다 환경 친



화적인 이벤트를 마련하는 한편 '내 친구 초록이'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사진)와 조형물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내친구 초록이'의 수익금은 △내팔 등 제3세계의 이웃을 위한 직업훈련학교 및 의료 사업 지원 △무의탁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후원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를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 △실직노숙자 자활 프로그램 실시 등의 기금으로 활용된다. 한편 이웃을 돕는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이름으로 후원회원에 가입하는 '다함께 회원'을 모집한다. 김재경 기자

# 인터넷 마하몰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과 그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을 만나십시오」

☎ 02) 732-1522 (직) 02) 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부처님의 교설을 열심히 공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불자들의 서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 주문전화 : 02)732-1522(직통)/737-8881(대표)
- ▶ 주문팩스 : 02)737-0697
- ▶ 판매처 : 마하몰

이 연등은 재가불자들의 구매용이 아닙니다.

## 마하 반야심경 봉축 조립등



### <설치순서>

1. 연등의 뒷부분을 조립한다.
2. 연등의 앞부분을 조립한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초꽃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포함, 탁송비 별도
- 가격 : 1,84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60182호



뒤에 젖지 않습니다

## 마하 반야심경 봉축 점등



### <설치순서>

1. 접힌 상태의 연등을 편다.
2. 내부에 접혀 있는 지지철봉을 누른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초꽃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별도, 탁송비 별도
- 가격 : 2,500원 (이름표 포함 2,60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79042호



뒤에 젖지 않습니다